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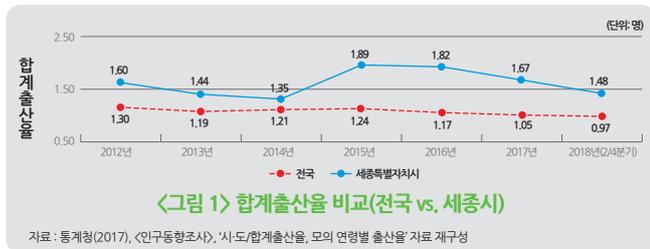
발행일 2019. 3. 15.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박재욱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세종시 출산감소 유형과 장래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향¹⁾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최성은

I. 서론

- 세종시의 출산감소 유형의 변화를 검토하고, 세종시가 향후 취해야 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국 평균 수준에 웃도는 합계출산율로 인해, 세종시는 '출산율 걱정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또한 인구대체수준 합계출산율 2.05명 ~ 2.1명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므로, 세종시의 출산율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I. 세종시의 출산감소 유형과 장래인구 변화

- 3개의 주요지표를 통해 본 출산감소 유형분류
-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의 출산감소 유형분류를 위하여 아래 3가지 지표를 사용함
 - 20~44세의 젊은 여성인구 비율, 20~44세 여성의 기혼 비율, 합계출산율
- 각 지표의 평균을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사용해 5가지 출산감소 유형을 도출함

[표 1] 출산감소 유형분류 기준

| 구분 | 내용 | |
|----------|---------|------------|
| 출산감소 중위험 | 젊은 여성비율 | 평균미만 |
| | 합계출산율 | 평균이상 |
| | 기혼 여성비율 | 평균이상 또는 미만 |
| 출산감소 고위험 | 젊은 여성비율 | 평균미만 |
| | 합계출산율 | 평균미만 |
| | 기혼 여성비율 | 평균이상 또는 미만 |
| 출산희피 | 젊은 여성비율 | 평균이상 |
| | 합계출산율 | 평균미만 |
| | 기혼 여성비율 | 평균이상 |
| 결혼희피 | 젊은 여성비율 | 평균이상 |
| | 합계출산율 | 평균이상 |
| | 기혼 여성비율 | 평균미만 |
| 출산선호 | 젊은 여성비율 | 모두 평균 이상 |
| | 합계출산율 | |
| | 기혼 여성비율 | |

■ 세종시의 출산감소 유형 변화

- [표 1]의 유형분류 기준을 활용해 17개 시·도의 출산감소 유형 변화를 살펴봄
- 세종시의 경우 2012년 출범당시에는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이었으나, 2015년부터 울산광역시와 함께 '출산선호' 유형으로 이동함. 2017년에는 세종시만이 유일한 '출산선호' 유형으로 남음

[표 2] 세종시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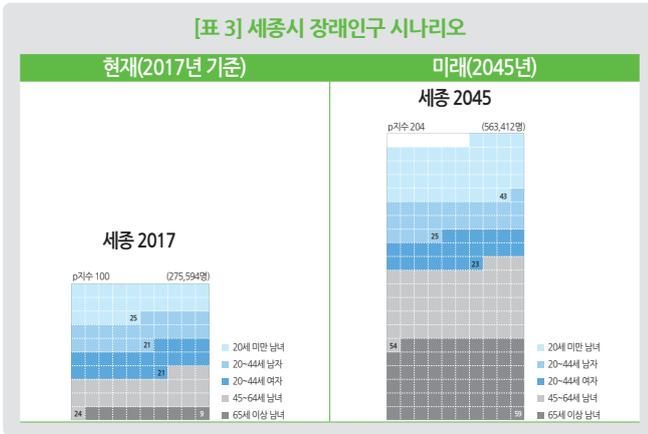
| 구분 | 연도 | 2012년 | 2015년 | 2017년 |
|----------|----|--------------------------------|------------------------|----------------------------|
| 출산감소 중위험 | | 세종,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전남 | 제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경북 |
| 출산감소 고위험 | | 강원 | 강원, 전북 | 강원, 전북 |
| 출산희피 | | 경기 | 광주, 경기 | 경기 |
| 결혼희피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 출산선호 | | 울산 | 세종, 울산 | 세종 |

■ P지수로 본 세종시의 장래인구 시나리오

- P 지수를 활용하여 세종시의 2045년 인구 시나리오를 추계한 결과, 2017년에 비해 전체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 P지수: 2017년 세종시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 나온 지수
- 2017년 P지수 = 100, 2045년 P지수 = 204

1) 이 글은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과제인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20~44세 젊은 연령층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추계되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III.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환경



〈그림 2〉 세종시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환경

IV.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제안

■ 정책의 내실화와 시각지대 해소

- 기존 임신·출산·자녀 돌봄 관련 정책 지원 확대와 내실화
-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신뢰회복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노력
- 입양가정, 이주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강화
- 마을 노인·중장년층 재능 기부 및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 보완 서비스 마련'
- 돌봄의 사적 이전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

■ 결혼 및 정주환경 조성

- '교육기관-기업-세종시'의 협력적 체계 강화
-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가 세종시에서

-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협력을 강화
- 세종시 내 대학교의 전공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노력
- 창업 지원과 창업에 따른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
-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로 도시브랜드화 필요
-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한 신생도시로서, 젊은 인구가 많고, 새로운 정책적 실험(스마트 도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등)이 이루어지는 등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모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세종시-사용자(기업)-근로자 간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 강화 필요
- 여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유연근무제도 사용 장려
- 남녀 근로자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
-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손실 보전 방안 모색
-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 소득대체수준 향상을 위한 현금지원 방안 검토
- 가구 내 성별임금격차로 인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으로 작용
-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함
- 자녀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탄력근무제 활성화
-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근로자가 다양한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필요
-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수혜가 직장 내 근무평가에서의 페널티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기업)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노력 제고



〈그림 3〉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시민 연령별)

2월 대전 경제동향



종합평가

대전시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8년 7월 이후, 11월 잠시 주춤하였으나 상승하는 추세임.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11월 이후 연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 향후 대전지역 경기는 단기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전망이다

개별지표에 있어서는 전월대비 생산과 소비가 활발한 반면, 고용이 악화되고, 건설경기와 대외거래가 위축됨.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과 소비가 활발한 반면, 고용이 악화되고, 건설경기와 대외거래가 위축됨.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은 조정을 받는 모습. 美·中 무역갈등, 브렉시트,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됨

대외적으로는 양호한 소비, 적극적 재정운용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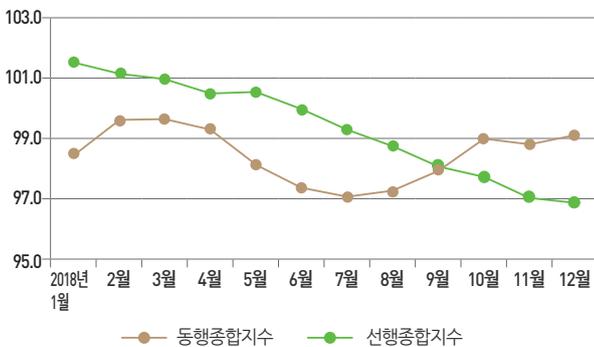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 대책 및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지역 현안 및 국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01

경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201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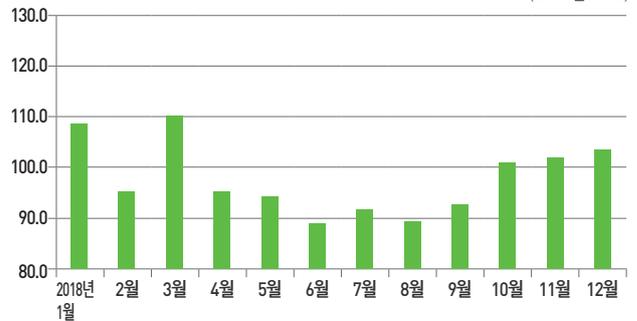


02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201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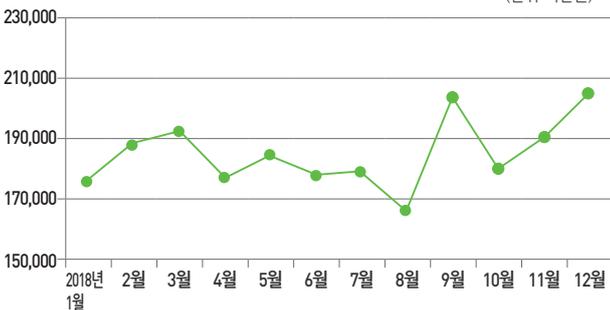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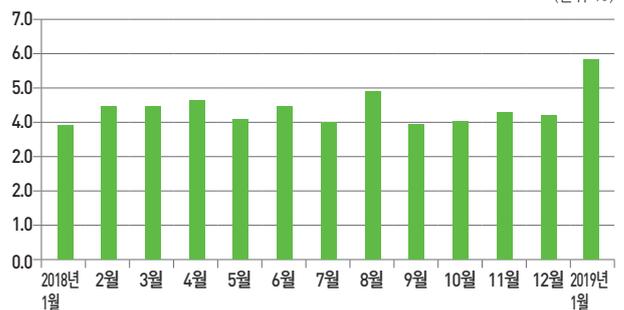


04

고용 실업률



(단위:%)



2월 세종 경제동향



종합평가

세종시 2019년 1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63.8로 나타남.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하락하던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9월부터 11월까지 상승하였으나 2019년 1월에는 63.8로 하락함. 소상공인의 경기에 대한 전망지수는 전년 동월, 전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생산측면에서는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8.4% 증가함.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12.5% 증가함

1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531건으로 전년 대비 39.9%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40.8% 증가함. 전월세 거래량은 1,970건으로 전년 대비 45.3%, 전월 대비 60.6% 증가함

1월 경제활동 인구는 16만 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7천명) 대비 17.5% 증가, 전월(16만 천명) 수준에서 보합을 유지함. 취업자는 15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4천명) 대비 17.2%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6%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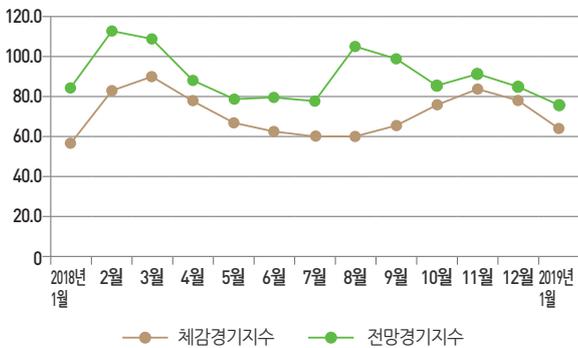
1월 전국의 실업률은 4.5%이며, 세종시 실업률은 2.6%로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2.3%)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세종시 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0.7%p 증가함

01

경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100=전월 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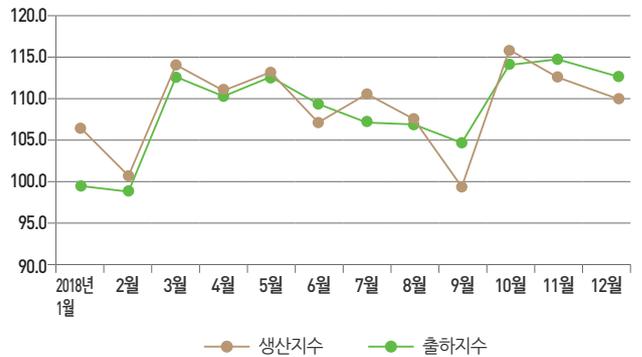


02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 추이



(201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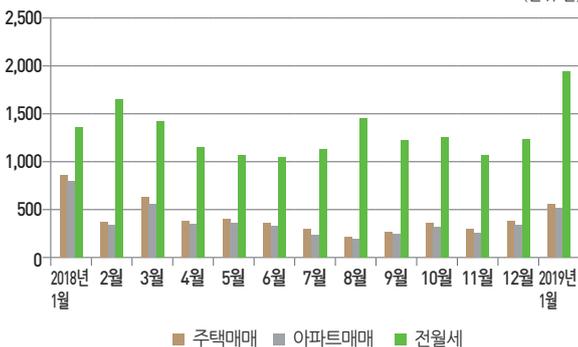


03

부동산 부동산 가격지수



(단위:건)



04

고용 실업률



(단위:%)

